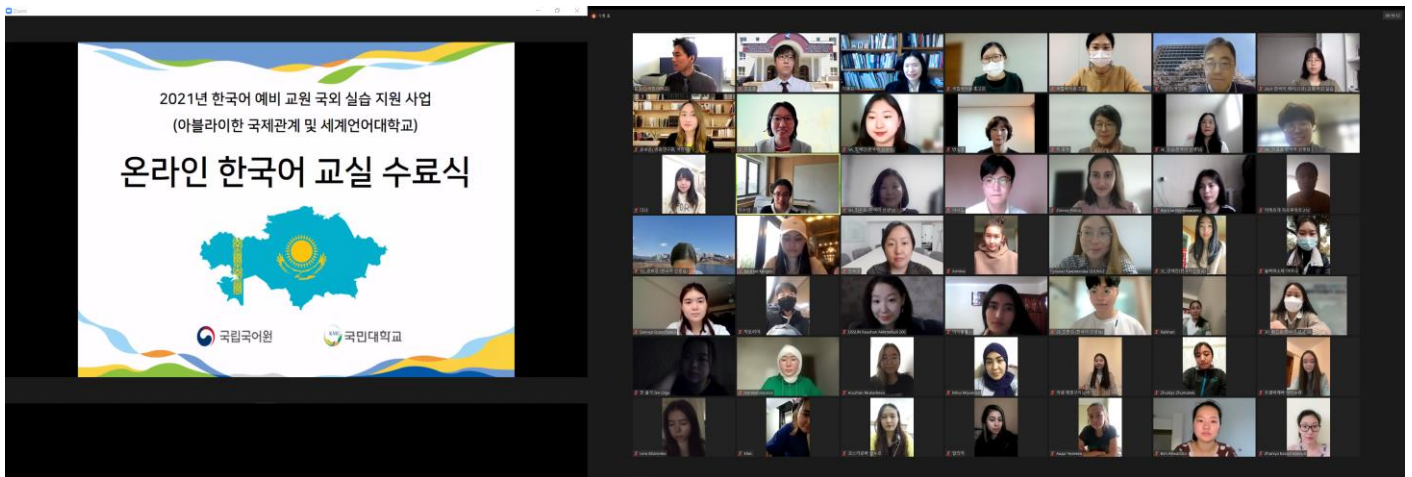


KazNKS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21.11.26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실습 온라인 한국어교실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와 국민대 국외실습지원사업단(단장 이동은)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1년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실습(중앙아시아 지역) 온라인 한국어교실"이 10월 22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10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어 경력교원 4명과 예비교원 15명이 카자흐 세계언어대 학생 75명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강의하였다. (관련 기사 p.2)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관련기사 pp.2-3)

2021년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실습 지원사업 (중앙아시아 지역) 온라인 한국어교실 수료식, 2021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나자르바예프대
(관련기사 pp.4-6)

한국학세미나 시리즈, 한국학 토크 콘서트, 제 1회 NU 한국어 말하기 대회, 통일공공외교 세미나 "한반도 안보 환경"

카자흐 국립대
(관련기사 pp.7-8)

한국어 교원을 위한 특강-세미나,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한국학주간, 한가위-추석 행사, 2021 학년도 선후배 만남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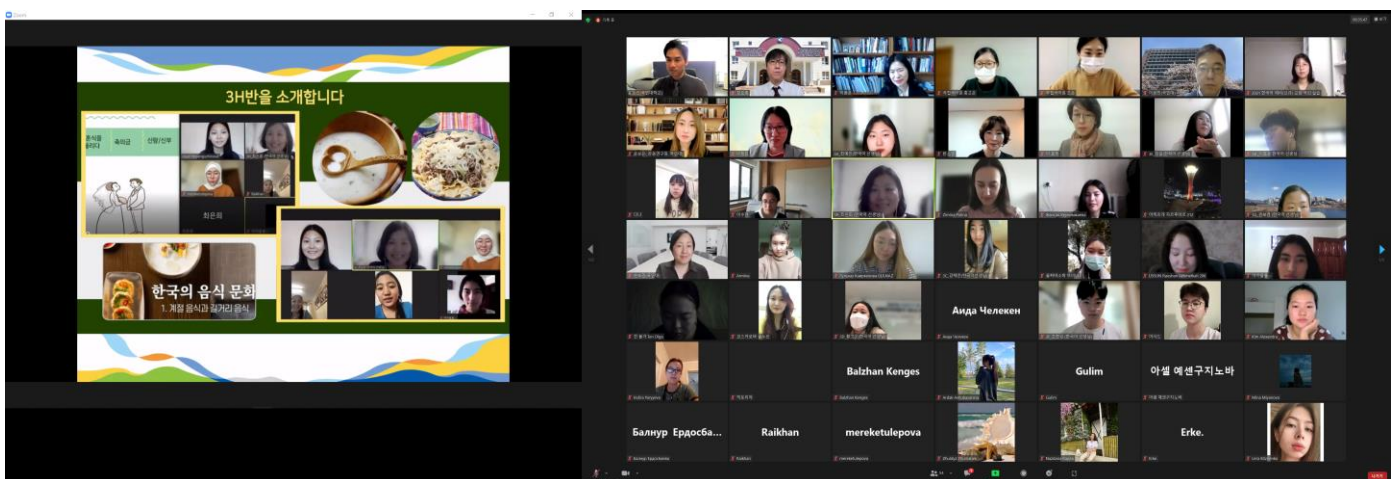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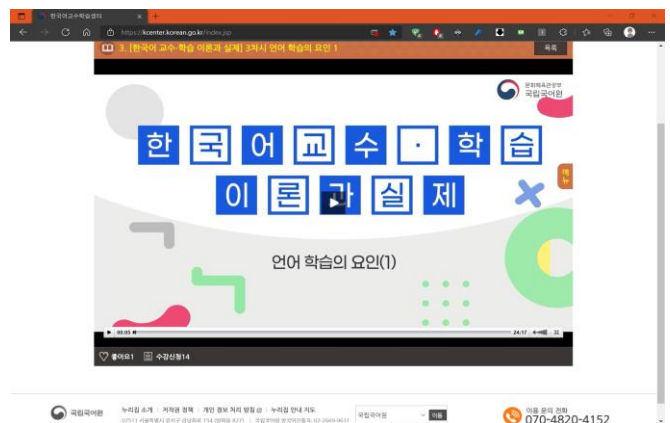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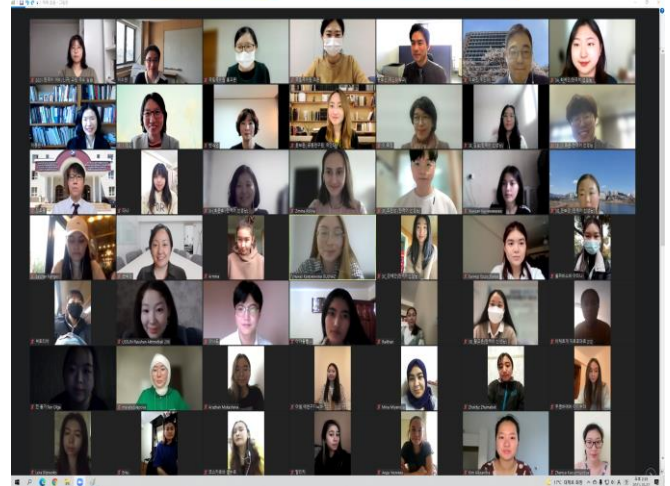
온라인 한국어교실 수료식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와 국민대 국외실습지원사업단(단장 이동은 교수)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1 온라인 한국어교실”이 10월 22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10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어 경력교원 4명과 예비교원 15명이 카자흐 세계언어대 학생 75명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강의하였다. 온라인 수료식에 참석한 한국의 예비교원과 카자흐스탄의 학생들은 직접 대면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곧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2021년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실습 지원사업”은 한국어 예비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한국어 교수, 학습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한 공유와 협력 및 확산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부터 5년째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대상 지역을 넓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의 4개국 6개 도시에서 온라인 한국어교실을 진행하였다.

또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현지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교원 보수교육을 유튜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어 교원들은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수학습센터(<https://kcenter.korean.go.kr>)를 통해 LMS(language management system) 방식의 관리 하에 한국어 교수 학습 이론과 실제, 어문규범, 교육실습론, 한국어-러시아어 대조언어학, 온라인 수업 활용, 표기법, 화용론, 수업참관 등 다양한 분야의 교원 재교육을 수강하게 된다.

중앙아시아는 교육 환경이 다소 열악한 편이지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기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실습사업은 현지의 교원과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수법과 학습방법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실습사업이 현장실습과 온라인학습의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기를 기대해본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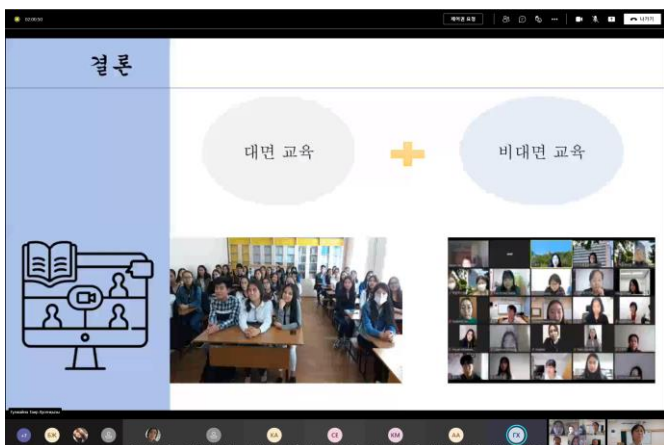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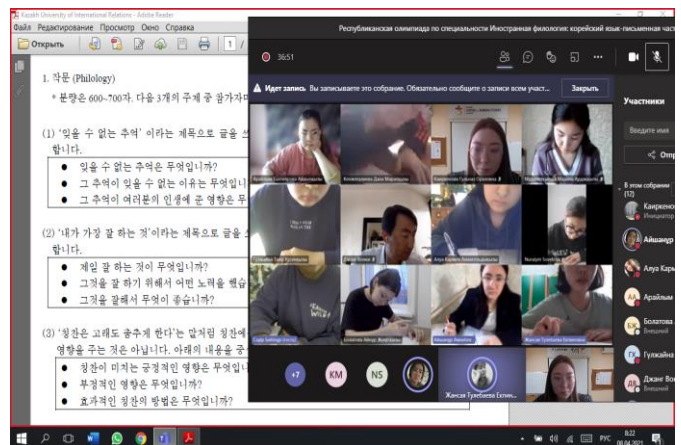
2021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2021년 4월 8일(목)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21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2011년부터 개최한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는 2015년부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로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2018년부터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와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로 분리하여 개최하고 있다. 2019년에 개최된 제 10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에는 알마티,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크질오르다,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타라즈, 비슈케크,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키예프 등 5개국 11개 도시 17개 대학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된 31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명실공히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언어경시대회로 자리잡았다.

지난 해부터 세계적인 전염병의 여파로 대학의 교육과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올해 한국학올림피아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발표 주제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코로나 19 이후의 한국어 학습”으로 결정되었다. 학생들은 지난 1년간 체험한 원격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교육 현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콘택트(contact)를 넘어 온택트(ontact)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흐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온라인수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불구하고, 지금의 비일상적인 상황이 빨리 끝나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참가한 학생들의 공통된 희망이었다.

작문과 발표를 종합한 심사 결과 1등은 타이르 굴자이나(세계언어대 3학년), 2등은 소베토마 누라일림(카자흐 국립대 2학년), 3등은 아만베크 아이샤누르(세계언어대 3학년)가 차지하였다. 수상자들에게는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후원하여 1등 100,000 텡게, 2등 50,000 텡게, 3등 30,000 텡게, 장려상(2명) 20,000 텡게씩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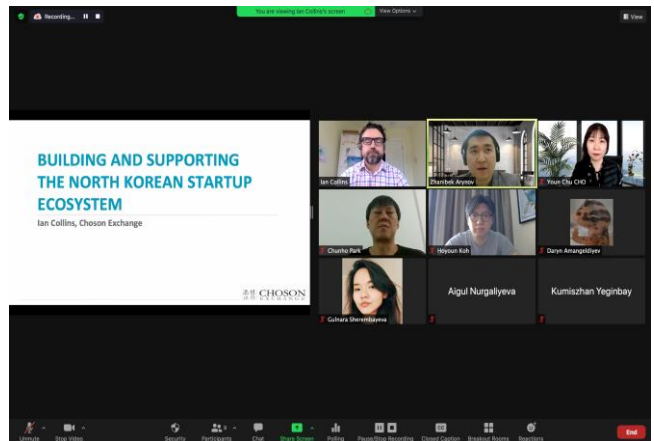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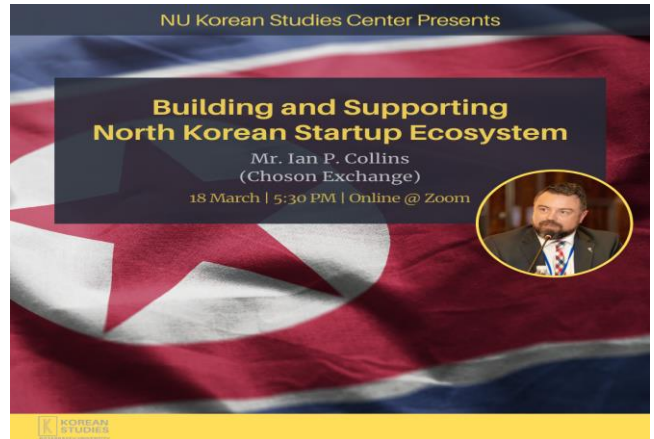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세미나 시리즈

“북한의 스타트업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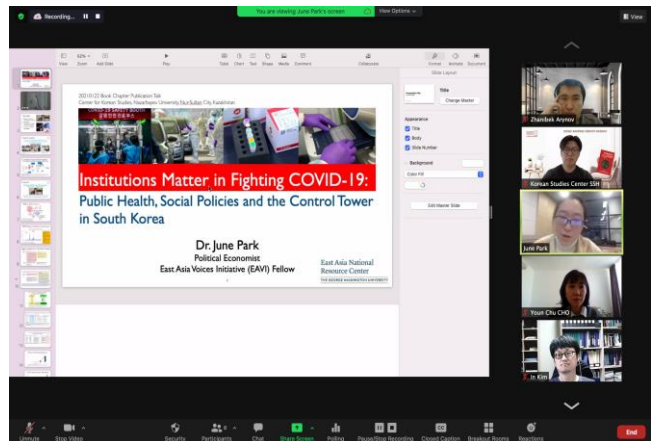
2021년 3월 18일에 개최된 이번 한국학세미나 시리즈는 북한을 주제로 “북한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조선교류(Chosen Exchange)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이안 콜린스의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조선교류는 북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및 스타트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비정부단체로 2010년부터 10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약 3000명의 북한주민들에게 기업가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날 세미나에서 콜린스는 북한에도 비즈니스 혹은 기업가 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의 주요 경제 주체들의 시각에 맞추어 성장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폐쇄적인 정치체제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는 외국인들을 상대로한 상점들이 다수 영업 중이며, 오래된 경제체제 하에서도 사치품을 다루는 상점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였다며 경제체제와 같이 압박을 전제로 하는 정책 외에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표 후에는 북한을 상대로 진행되는 사업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북한 현지의 상황, 그리고 경제체제 하의 북한 경제활동 등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학세미나 시리즈의 모든 영상은 한국학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세미나 시리즈

“한국의 코로나 대응 분석: 공공보건, 사회정책, 그리고 콘트롤 타워”

지난 1월 22일에 개최된 한국학세미나 시리즈는 박준의 박사(미국 조지워싱턴대 펠로우)를 초청하여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분석을 들었다. 박준의 박사는 한국은 신속하고 공격적인 검사와 엄격한 역학관리를 통해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초기에 성공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관리하였으며, 이는 2015년의 메르스 사태로부터 배운 교훈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한국학세미나 시리즈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 지역주의를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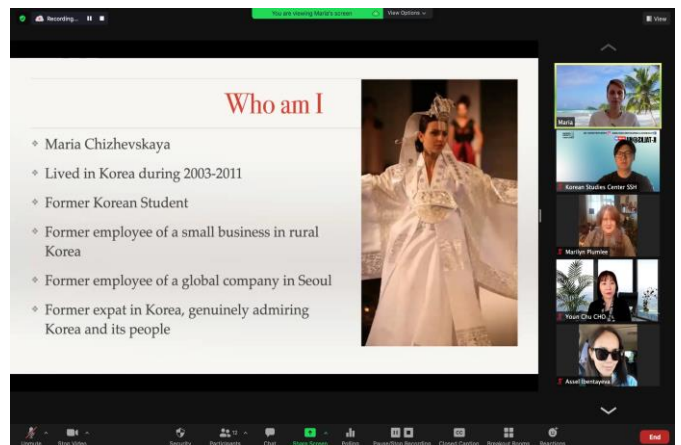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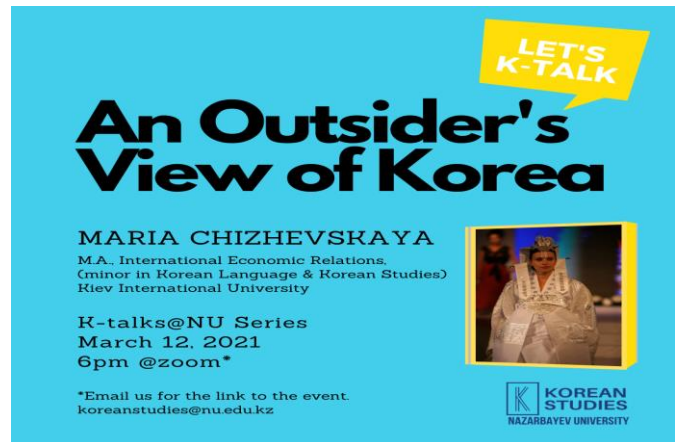
지난 4월 23일 NU 한국학센터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 지역주의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이번 학기의 마지막 한국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구과학기술대 (DGIST)의 윤지성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의 지역주의 선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부터 변화하는 한국의 투표형태에 대한 새로운 전망까지 한국의 선거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윤 교수는 독립 이후 4.19, 광주민주화, 삼당합당 등과 굽직한 한국 근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 이해를 도와주었다.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 토크콘서트

“외국인이 본 한국: 글로벌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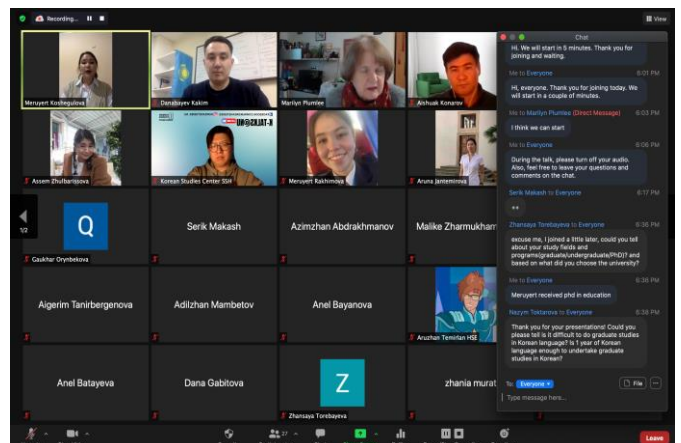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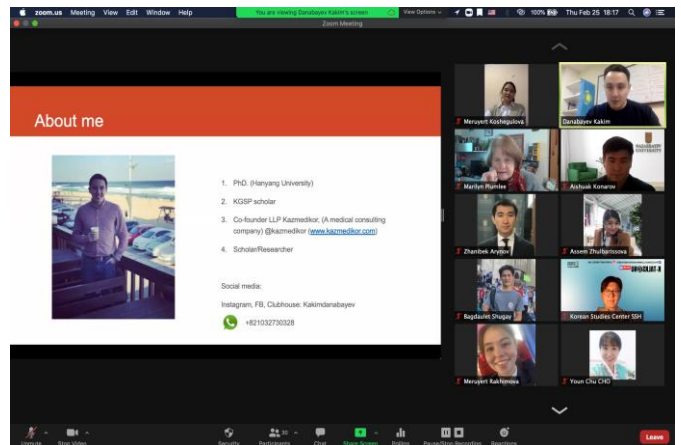
지난 3월 12일 (금) K-Talks@NU 시리즈는 “외국인이 본 한국”이라는 주제로 마리아 치제프스카(Maria Chizhevskaya)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우크라이나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한국학을 부전공한 마리아는 2000년부터 10여 년 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계기업에서부터 지방도시의 작은 기업체는 물론 “미녀들의 수다”에 패널로 출연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을 경험하였다. 이 날 강연에서 마리아는 2000년대 당시 한국이 집중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사회의 각 분야에서 외국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관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한국은 자국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997년의 IMF 위기를 겪으면서 외부의 비판에 포용적이고 빠르게 받아들이는 경험을 쌓으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다고 보았다. 강연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는 외국인으로써 한국사회에 동화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영상은 본교 한국학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 토크콘서트

“한국에서 카자흐 유학생으로 살아가기”

지난 2월 25일 (목) NU 한국학센터의 토크콘서트 시리즈인 K-Talks@NU가 열렸다. 이번 세션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에서 일하고 있는 세 명의 연사를 초청하여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메릴린 플럼리 교수가 진행을 맡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카자흐 사람으로서 한국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마치고 지금의 직장을 잡기까지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먼저 NU 공과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이슈아크 코나로프 박사는 세종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경험을 나누면서 지도교수의 영향과 높은 학업강도를 강조하였다. 메루에르트 코세굴로바 박사는 동국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힘들었던 시간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카킴 다나바예프 박사는 한양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를 공부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작은 벤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나바예프 박사는 한국의 정부초청장학생 선발에서부터 한국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였으며 패널토론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장학프로그램 지원이나 한국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졌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영상은 본교 한국학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자르바예프대

제 1 회 NU 한국어 말하기대회

본교 한국학센터는 지난 3월 교내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알마티 한국교육원의 후원으로 실시되었다. 초급부와 중급부로 나누어 실시한 이번 대회는 총 18 명의 참가자들이 말하기 영상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초급부는 “내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라는 주제로 5-7 분 분량의 말하기를, 중급부는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이라는 주제로 7-10 분 분량의 말하기 영상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다. 본교 한국학센터 교수진들의 공정한 심사 통해 초급부와 중급부 각 3 명의 수상자와 1 명의 인기상을 선발하였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수상자들의 말하기 영상은 NU 한국학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한 말하기 대회는 앞으로 매년 1회 한국학센터에서 주최할 예정이며, 참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교내는 물론 누르술탄 시내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뽐내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일공공외교 세미나

2021년 11월 18일 본교 한국학센터는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통일공공외교 세미나 “한반도 안보 환경”을 실시하였다. 해당 세미나는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대사관과 현지의 썩크뱅크가 함께 한반도의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관련된 주제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본교 한국학센터와 함께하였으며, 누르술탄 시내의 릭소스 호텔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본교 한국학센터의 고희운 교수(정치학)가 사회를 맡았으며, 자니베크 아리노프 박사(정책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구홍석 대한민국대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는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아카데미의 코세르바예바 부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달하였으며, 주카자흐스탄 스웨덴 대사관을 비롯하여 현지의 여러 해외 공관에서도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외국어대학의 김진아 교수가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맡아주었다. 두 번째 주제는 ‘대북 교류의 과거와 현재’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박사가 발표하여 대북정책의 과제와 북한의 변화 전망에 대한 분석을 들었다. 끝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의 천명국 박사는 ‘북한의 핵위협 억제에 대한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현 주소를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세 명의 발표에 대하여 자니베크 아리노프 박사와 다우렌 아벤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객석에서의 질문에 토론자들과 발표자들이 함께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자흐 국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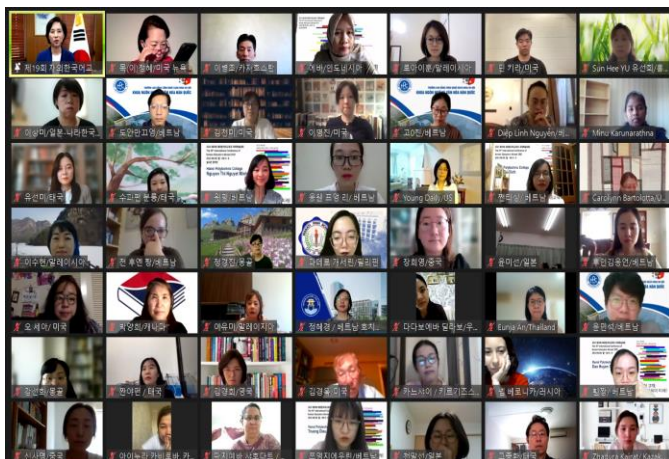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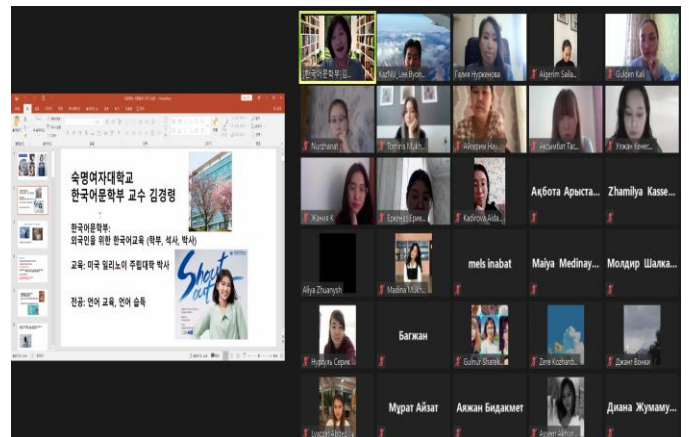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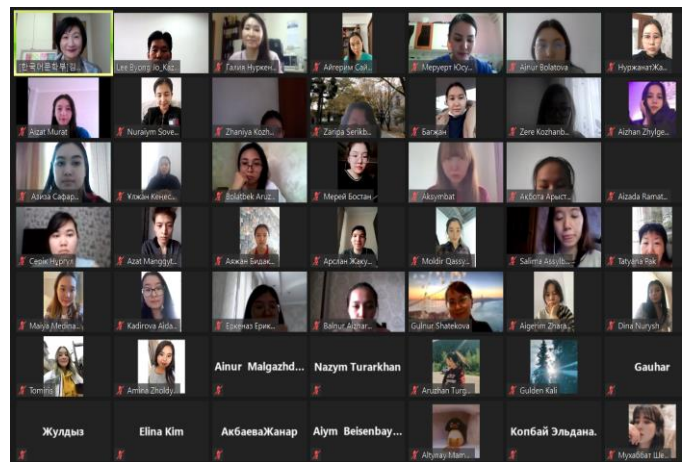
한국어 교원을 위한 특강-세미나

2021년 2월 25일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강사 및 대학원, 학부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과 학습방법에 대한 1차 특강이 있었다. 특강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강사들은 온라인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방법을,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신조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수업 중 배운 내용을 전문가 특강을 통해 다시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력을 향상하였고, 학생들도 단순히 교재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활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월 29일에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에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과 학습방법에 대한 2차 특강이 있었다. 50여명의 학과 구성원이 참여한 이 특강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사이트와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큰 호응이 있었으며, 특강 후 이어진 질의응답 내용에서도 특강 참석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특강은 참여한 교강사와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 모두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해소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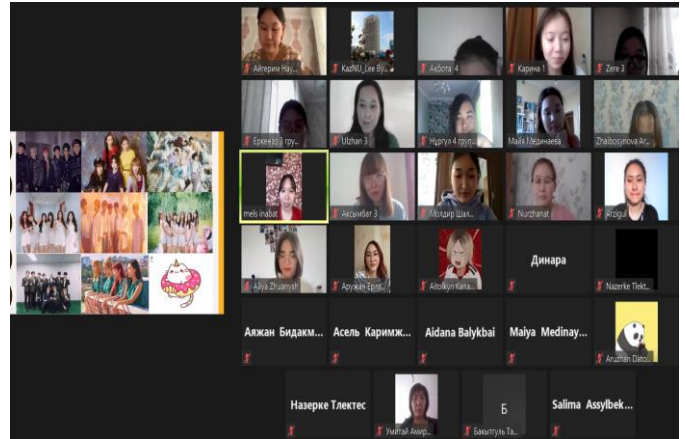
여름방학 기간 중인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2021 제 19회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어교재, 한국어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세계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교육 행정가들이 참여하였으며, 해외 한국어 교재 개발, 보급 및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본교의 한국학과 교강사진(3명)과 학생들(4명)도 참여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한국어교육에 힘쓰고 있는 해외 한국어교육자 및 교육행정가, 그리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한국어교육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주간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와 전통으로 자리잡은 “한국학주간” 행사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동방학부 한국학과에서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연례행사로 한 주에 걸쳐 “한국역사문화 퀴즈대회”, “한국어 경시대회”, “한국음식문화 체험의 날”, “기업인초청특강”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마지막날에는 “대사와의 만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마티 한국총영사와의 만남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한 주일 동안의 한국학주간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한국학주간”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한국의 정부기관, 기업체 구성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류와 협력관계를 더 돈독히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한가위-추석 행사

2021년 9월 21일 한가위 명절을 맞아 송편과 인절미를 나눠 먹는 한가위 행사가 열렸다. 학과의 연례행사로, 코로나 19 상황과 온라인 수업으로 지친 학과 구성원들이 한가위 떡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시간을 만끽했다. 2021 학년도 1학년 신입생들과 “신입생같은” 2학년 학생들은 그 동안 한 칸에 걸려있던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사진을 찍으며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았다. 여전한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 준비된 떡만 나누고 헤어진 짧은 행사였지만, 선생과 학생 모두 잠시나마 얼굴을 맞대고 한가위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021 학년도 선후배만남

2021년 9월 24일 전학년이 함께하는 가운데 학과 내 연례 친선모임인 “선후배간의 만남” 행사가 있었다. 매년 동방학부 대강당에서 치러지던 학과 선후배 간의 만남 행사가 작년에도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 19의 여파로 ZOOM을 통해 개최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학년별 장기자랑이 이어졌고, 카자흐스탄 전통악기인 돔브라 공연, K-POP 공연과 댄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을 활용하여 뮤직비디오 수준의 K-POP 공연도 선보여 학생들의 큰 호응과 실시간 댓글 세례가 이어졌다. 해외에서 취업활동 중인 선배 졸업생들과 유학생들의 영상 메시지도 함께 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일 기회가 없어 자칫 소원해질 수 있는 학과구성원들 간에 어우러진, 신학기 초 신입생과 재학생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